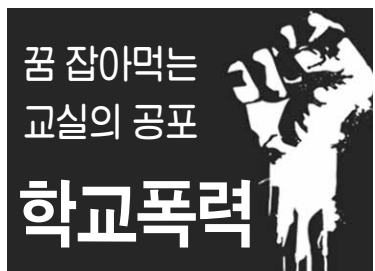


담배 심부름·옷 뺏기 예사...때려 놓고 "장난이다"



(3) '일진경보학교' 가보니

“요즘은 대놓고 괴롭히진 않아요. 그 친구들(일진들)은 체격이 왜소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장난’이라며 때려요. (일진인) 자기들은 장난이라지만, 당한 친구 입장에서 ‘장난’이었어요? 절대 아니죠.”

지난 22일 광주 A중학교 교문에서 만난 Y(14·A중 2년)군은 일진들의 학교 폭력에 대해 같이 말했다. 최근 같은 반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

던치 작은 학생만 골라

야비하고 교묘하게 괴롭혀

보복 두려워 신고도 못해

스쿨폴리스 있으나 마나

한 적이 있는 Y군은 괴롭힘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 학교 폭력의 형태는 더욱 진화했다고 말했다.

당하는 수준만 다를 뿐 뚜렷한 이유 없이 소위 ‘만만해 보이는 친구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것이다.

Y군의 학교 폭력 피해 사례는 이렇다. Y군은 최근 복도 복도를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같은 반 친구 K군과 마주쳤다. Y군은 K군을 피해 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K군이 자신을 벽으로 밀친 뒤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왜? 기분 나빠? 한 판 놀까?”라고 위협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만이 아니라는 게 Y군의 고백이다. 담배를 피우는 K군은 담배가 떨어지면 금단현상을 호소하며 책상·의자를 뒤엎은 뒤 “담배를 구해오지 않으면 때리겠다”며 같은 반 학생들을 괴롭혔다. 강제로 옷을 빼앗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Y군은 “작은 교복이 멋있으며 친구의 교복을 빼앗아 입거나 바꿔입기도 한다”면서 “K군이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생일이라고 적었는데, K군에게 피해입은 친구들조차 ‘생일 선물’이라고 말해줬다”고 말했다.

Y군과 대화를 나누던 때 학교에 나선 한 학생 뒤로 서너 명의 학생들이

달려오더니 덩치가 작은 학생의 뒤를 수를 세게 때리고 도망갔다.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온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장난이잖아. 화 안 났지?”라고 한 마디 던졌고, 피해 학생은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그래”라고 답했다.

일진 학생들이 아무 이유없이 때려도 피해 학생들은 ‘장난’이라는 말로 아무 말도 못한 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이 학교폭력이 갈수록 지능·흥분화되고 있는 이유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방향이 처벌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K군의 회포를 참다 못해 친구들이 신고해 정학처분을 받았지만 K군은 일주일 만에 학교로 되돌아왔고 폭력은 계속됐다는 게 학생들의 전언이다.

이제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고 싶

어도 신고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스쿨폴리스제·일진학교경보제 등 다양한 정책도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나온다.

역시 일진 경보학교인 광주 B중학교에서 만난 P군(15)은 “등·하교할 때 경찰이 서 있지만, 학생들이 신경 쓰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하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가끔 학교에 찾아와 둘러보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다.

▲일진 경보학교=전국적으로 100곳이 지정돼 있으며 광주 3곳, 전남은 6곳이다. 학교 폭력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지정된 일진 경보학교에 전담경찰관·생활지도 전담교사 등이 배치돼 있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0분 / 해질 18시 48분 / 달출 16시 45분 / 달몰 04시 49분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0/9°C
목포	맑음	1/7°C
여수	맑음	4/10°C
나주	맑음	-1/9°C
완도	맑음	2/8°C
구례	맑음	-1/11°C
강진	맑음	1/8°C
해남	맑음	1/7°C
장흥	맑음	1/9°C
순천	맑음	-1/10°C
영광	맑음	-1/7°C
진도	맑음	2/6°C
전주	맑음	-1/9°C
군산	맑음	-1/6°C
남원	맑음	-3/9°C
홍산도	맑음	2/5°C

바다	중랑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관심	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관심	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관심	높음	높음

시간	날씨	기온	미물	쌀물
00:28	맑음	2.0~3.0m	목욕	06:01
12:59	맑음	2.0~3.0m	목욕	18:28
08:02	맑음	1.0~2.0m	여수	01:42
20:19	맑음	1.5~2.5m	여수	14:0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31(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12	4/16	6/17	3/16	3/17	6/18

광주 '서울대 진학' 3년 연속 줄어

올해 116명 전국 7위...전남은 73명 최하위권

광주지역 고교 출신 서울대 신입생이 3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광주지역에서는 총 116명이 진학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위에 머물렀다.

전남은 73명에 그쳐 전국 1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대에 정보공개 청구한 '2011~2013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지역별·고교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신입생 최종 등록자는 3283명으로 이 중 광주지역 고교 출신은 116명(수시 100명, 정시 16명)이었다. 이는 전체 신입생 대비 3.53%로, 전국 7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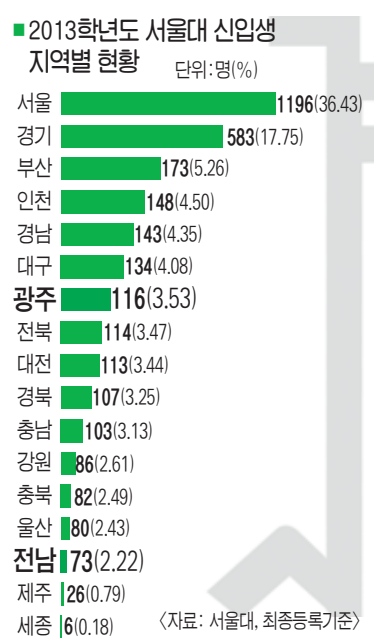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110명(수

시 94명, 정시 16명), 과학교 5명(수시), 광주예고 1명(수시)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은 3년 연속 서울대 진학률이 떨어졌다. 지난 2010년 143명(전체의 4.16%)이었던 신입생이, 2011년에는 125명(3.84%), 2012년에는 119명(3.66%)으로 3년 사이에 27명이나 감소했다.

전남지역은 서울대 신입생이 73명(2.22%)에 그쳤다. 일반고 67명(수시 59명, 정시 8명), 전남대학교 6명(수시)만이 진학한 것으로, 제주(26명), 세종(6명)에 앞서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110명(수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27일 국회서 공청회

농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작업이 본격화 된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국회의원회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 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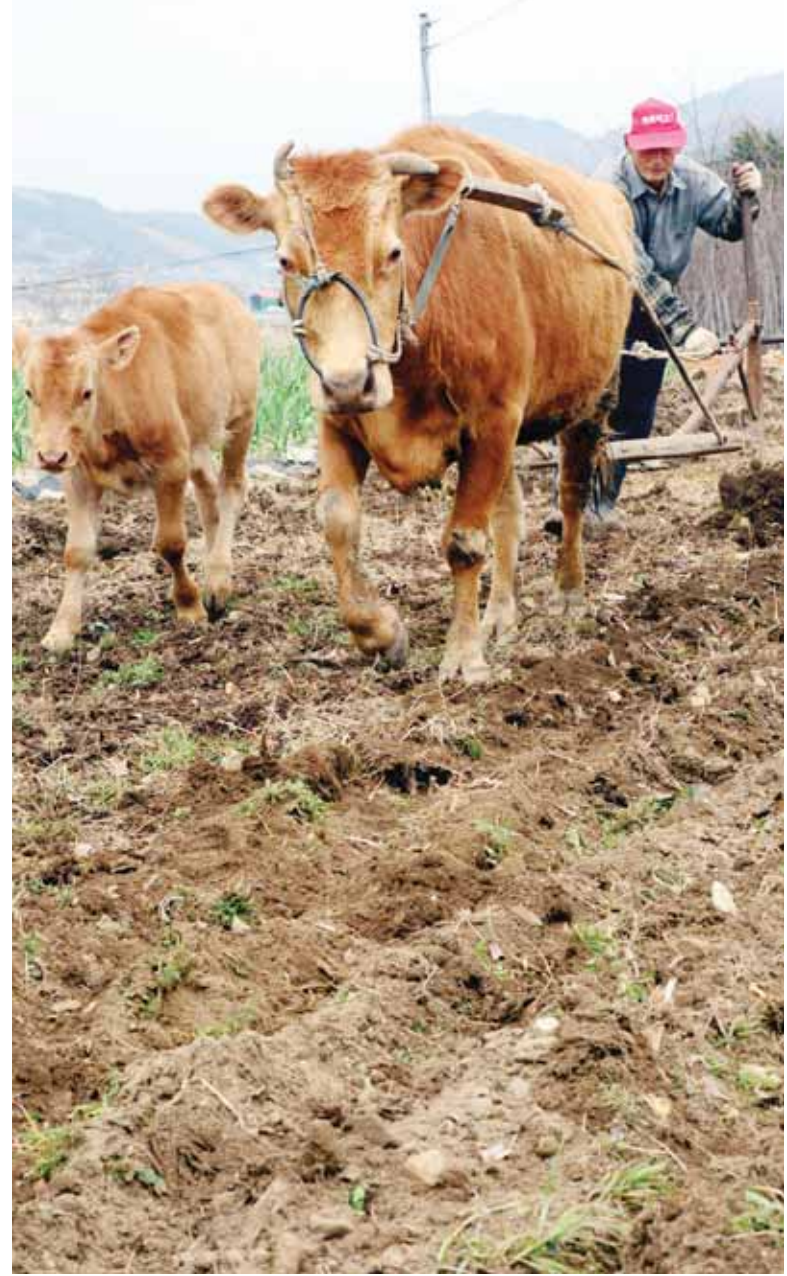
전남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법 제정 추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구신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소장과 임연기 공주대 교수 등이 전문가 패널로 나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추진 방향에 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이 법안은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농어촌교육 정상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한 민주통합당 이낙연·박혜자 의원 등이 앞장서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33명과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농어촌학교 교직원 특별임용, 농어촌학교 출신 학생의 대학특별전형 확대, 지역 공공기관·기업 채용 시 의무고용 확대 등이 담겼다.

박정영기자 jwpark@kwangju.co.kr



새봄 여는 쟁기질

새봄을 맞아 지난 23일 여수시 호명동에 사는 홍성덕(72) 할아버지가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다. 쟁기를 끄는 어미소 뒤를 3개월 난 새끼가 따라가는 모습이 한가로운 시골 봄의 정취를 느끼게 해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리산 반달곰 새끼 겨우내 '희비교차'

두마리 중 한마리만 생존

지난 겨울 지리산에 사는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출산했지만 다른 한 마리는 겨울잠을 자던 중 숨지는 등 희비가 교차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관리번호가 각각 RF-21, RF-25인 암컷 반달곰 두 마리가 바위굴에서 동면 중 출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끼 곰 가운데 한 마리는 키 50cm, 몸무게 5kg가량의 수컷이고 건강한 상태다. 다른 한 마리는 현장 접근이 어려워 울음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공단은 특히 이들 어미 곰이 2011년 1월에도 낳았던 새끼를 한 마리씩 낳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곰이 두 차례나 출산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지난해 도토리 생산량이 크게 주는 바람에 이 곰이 겨울잠에 들기 전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유일 후손 庶子일 경우 딸이 제사 모실 수 있다' 법원 판결

유일한 남자 후손이 서자(庶子)일 경우 친딸이 대신 제사를 모시고 분묘를 관리·처분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5부(김승표 부장판사)는 정모(50)씨가 '임야에 있는 무덤을 파서 옮겨달라'며 이모(67·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가일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 관습상 남자 후손이 없을 경우 여자 후손이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는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며 "사회상을 반영해 적서 간 차별을 없애고 여성도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롯데제이티비

롯데제이티비는 롯데그룹의 Global 여행 기업입니다.

1577-6511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믿을수있는 유일 여행사*

*정가제/터키전선상품 유류할증료 불포함!

이달의 우수대리점

금남로점 062) 228-6644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 062) 228-6644

“장가계 vs 터키” 특가제일!

장가계 천문산/원가계 4/5일

★무안→장가계 직항 전세기!

무안 출발 859,000 원부터

4/1~5/20 (월,금) 출발

“동서양의 만남” 터키 완전일주 8일

★국내선 2회 항공이동 포함~!

광주 출발 1,849,000 원부터

3/29, 4/2, 5, 9, 15, 19, 22, 5/3, 6, 10, 13, 17, 20~

3/29, 4/22, 5/13, 17, 31 (출발확정)

“황금연휴특선! 일본 오로라”

“전세기 특선” 오사카 3일

★무안→오사카 전세기편!

무안 출발 1,290,000 원부터

5/17 ★단하루~!

“일본” 북극순 온천 여행 4일

★광주→부산항 수송비용 포함!

광주 출발 369,000 원부터

5/15 ★단하루~!

유럽

유럽 2/23(토) 롯데호텔링 방영상품*

동유럽 4개국 9일

2,490,000 원부터

4/2(화) 27, 30(목) 5/7(목) 15(화) 29(목)~

동남아

총종일주 2중 버스합승+점보식 업그레이드 3일

499,000 원부터

3/29, 30 4/1, 2, 3, 4, 5, 6, 7, 8, 9, 10~

일본/괘사이판

오사카/나라/고토/고베 아리마 온천 3일

499,000 원부터

3/30, 31 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중국

황산 상해 항주 5 5일

★정상숙박+VIP 리무진 ★쉬운환+승선가사*

649,000 원부터

3/29, 30, 31 4/1, 2, 3, 4, 5, 6, 7, 8, 9, 10~

미주/남태평양

3월~6월 하와이 특가찬스!

입금 특가 찬스! 하와이 일금 15 6일

1,190,000 원부터

SIT

골프 대회참관+36층 명문골프 라운딩+사내관망*

2013 LPGA 롯데 챔피언십*

하와이 골프 참관 5일 4/19

[입금] 2,099,000 원부터 [특가] 2,399,000 원부터

●광주권: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창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점, 롯데마트 수완, 북구점, گیا점, 백운점, 구시창점, 양동점, 상무역점, 문화회관점, 서광주점, 매월점, 광산점, 능성점 ●전남권: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양점